

건강 칼럼

시력교정술, 연령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해야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속담처럼 눈은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안과 수술을 통한 시력 교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수술의 종류가 많아 정확히 알고 치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고 참고해야 한다.

10대라면? 드림렌즈가 적절하다.

잠을 자는 동안 착용했다가 아침에 제거하는 시력교정용 렌즈로 수면을 하는 동안 각막의 중심부를 편평하게 눌러주는 상피세포의 재배치를 유도해 근시와 난시를 교정하는 원리다. 렌즈를 제거하고 편평하게 눌러진 각막 중심부가 낮 동안 유지되어서 교정된 시력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다. 착용 가능한 연령에 제한이 없으나 성장기 아이들이 착용했을 때 근시 진행 속도를 지연시켜 근시 진행 억제 및 시력 교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대~40대라면?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이 있다.

먼저 라식은 각막 상피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 절편을 만들고

각막 절편을 열고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로, 열었던 각막을 그대로 덮는 방식이기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차가 있으나 타 수술에 비해 안구건조증 발생확률이 적은 편이다. 반면 각막 절편을 만들기 위해 각막 두께 조건이 맞아야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직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라섹은 라식과 달리 각막 절편을 생성하지 않고 각막 상피를 제거한 뒤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각막상피만 제거하기 때문에 각막 잔여량이 많고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각막 절편이 없으므로 절편이 이탈할 일이 없어 운동선수, 소방관, 군인

등의 직업군에 적합하다. 다만 환자마다 다르지만 수술 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시력 회복에도 1~3개월 가량이 소요되므로 처음 몇 주간은 초점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해 보호렌즈를 끼워주는데 약 일주일 뒤 이를 제거하러 다시 안과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자외선을 많이 받을 경우 각막혼탁 위험이 있어 수술 직후 3개월 가량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이 필요하다.

렌즈삽입술은 각막 주변부에 미세한 작은 절개창을 생성하여 안내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방식이다. 각막 절삭 또는 수정체 손상이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고도근시나 고도난시처럼 라식, 라섹 수술로 교정이 어려운 환자

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언제든 렌즈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후 시력이 떨어지는 근시 퇴행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라식, 라섹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들고, 렌즈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빛 번짐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중장년층은 노인백내장 수술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중장년층의 시력 저하 원인 중 상당수가 수정체의 노화로부터 온다. 50~60대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노안’, ‘백내장’이다. 수정체 조절 능력이 감퇴되는 노안과 수정체가 투명하고 단단하게 변성되는 백내장으로 시야가 침침해지고 특히 가까운 물건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백내장이 심하지 않다면 일차적으로 돋보기 착용만으로 시력을 교정할 수 있으나 백내장이 심하다면 수술을 통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던 장점이 있다. 다만 수술 후 눈부심, 그림자 저 보임,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뢰진과의 진료 및 충분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영희

부산 비스타안과 대표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튀르키예 남동부 지진 현장 투입된 구조대원과 의료진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르에서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 더미에서 수색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 격추’ 사진 실린 LA 차이나타운 내 중국 신문



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 내 한 신문 가판대에서 이곳 주인이 전날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의 사진이 1면에 실린 신문을 들고 있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풍선 사태로 방중 일정을 취소했다.

사설

마스크 착용 ‘권고’ 이후 일상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건 당국은 5월 정도면 모든 장소와 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거라고 예상했다. 따뜻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줄고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이다. ‘경계’나 ‘주의’로 떨어지면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기경보 단계는 WHO의 결정에 따라 가능성이 크다.

WHO도 비상사태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30일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곧 이어 3월 12일 팬데믹을 선언했다.

WHO가 중국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상태를 해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다음번 WHO 회의는 4월이다. 중국 당국이 춘절 연휴 이후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4월쯤엔 중국 상황이 훨씬 나아질 테니까 WHO가 비상상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우리도 4~5월쯤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하면서 7일 의무 격리도 해제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도 이때쯤이다. 코로나19는 지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급인데, 격리를 안 하려면 감염병 등급도 낮춰야 한다. 현재 인플루엔자(독감)는 4급이다.

코로나19도 독감처럼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감염병 등급을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 같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 독감처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된다.

백신 비용과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물론 고령층과 고위험군 백신 접종은 무료일 가능성이 크고, 치료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언제쯤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국 비자발급 중단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중국인 비자 규제를 연장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의 SNS는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중국 측 발표는 없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한국인 단기비자와 일본인 일반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다음 날은 중국 경유자에 대한 단기 무비자 체류도 제한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당시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한국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과 달리 비자 규제는 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2월까지로 연장했

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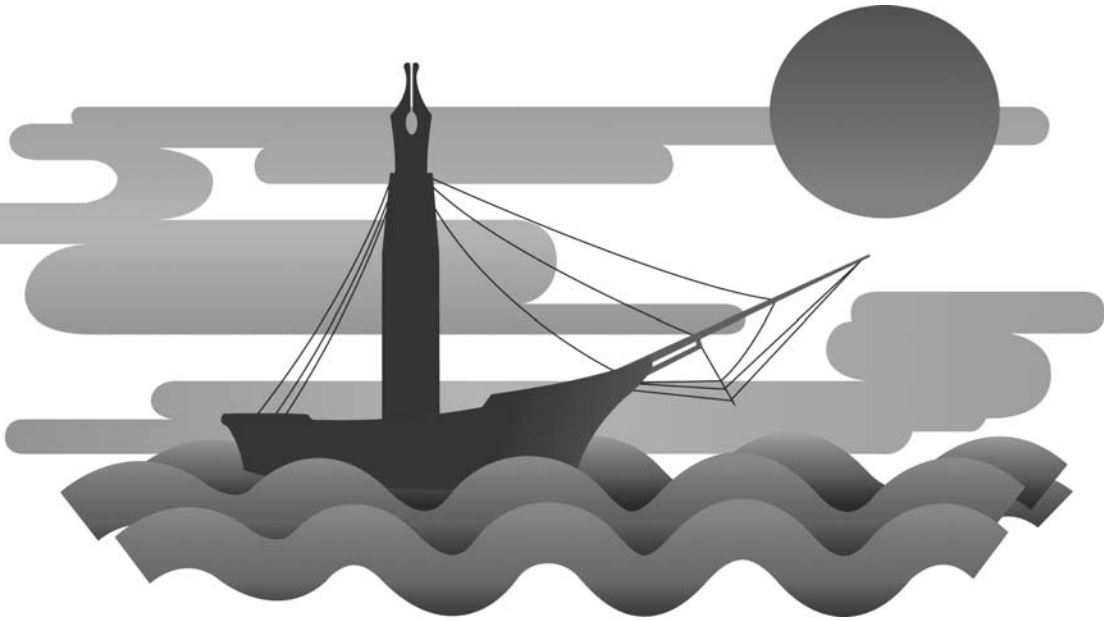
중국이 상용 조치를 강조했던 만큼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관련국이 과학적 태도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빨리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는 방역 이외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춘절 연휴 등의 이유로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국의 조치를 비난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 당국은 경제문제 등 원활한 한중관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